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스스로 제 발목 묶으니 흠 따르죠”

점안식을 하는 이유

부처님을 모실때 점안식을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집에서 불상을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편에선 안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점안식이란 얇은 물에나 깊은 물에나, 얇은 물에는 배를 적게 만들고 깊은 물에는 배를 크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 집이 되지 않고 주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적인 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들이 공심 공생 공제 공용 공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를 모르고... 주인 공(主人空)을 모르고 말합니다. 그 '주인 공'이란 것도 이름입니다.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자부처'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고 상대가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우리들 생활 속에서의 일거수 일투족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하는 전부가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지, 자기 몸

“나로부터 부처님 계시니 나부터 발견하는 것이 원칙 뿌리 없이 사는 나무 못보셨죠”

개인 집에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사불(邪佛)이 되죠. 점안식을 하는 것은 사불도 침범 못하고 일체 만물만생을 건지는 사이없이 건지개끔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불성이 있고 누구나 부처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무명에 가려 자기를 보지 못해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들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 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그 생명체들이 있는 반면에 이 몸 하나가 한 개체로서 틀어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통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조복받아 한다고 한 것입니다. 내 이 몸통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불교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네 나 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로부터 부처님 계시니 거니거 나부터 발견하는 것이 원칙이죠. 나의 근본!

저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없이 사는 거 못 보셨죠? 자기가 자기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뿌리와 짝이 돌아와 나라고 생각을 할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여러분들의 한 몸 한 개체가 바로 개별적인 나 아니라 포괄

통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통이 그 생명들의 집합소죠. 그 생명들의 집합소에서, 예를 들어서 내 속의 생명들이 '나 목 마르다' 하면 물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겁니까? 어디 내가 먹은 게 따로 있었습니까?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앞으로 할 것도 없고, 죽는다는 산다 할 것도 없고, 지금 모두가 공해서, 즉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그냥 나를 뺏습니다. 나뉠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행하다가, '어보' 하면 남편이 돼서 행하는데, '에 아무개야' 하면 아들로서 행하는데 어느 때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나라고 할까요? '아들아' 할 때 나라고 할까요? '어보' 할 때 나라고 할까요? 나라고 할 게 없으니만큼 고정되지 않게 그냥 화해서 찰나찰나 나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 없이.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보는 그대로 있습니까? 들으면 듣는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또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것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들음도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야 하고 이러한데, 어찌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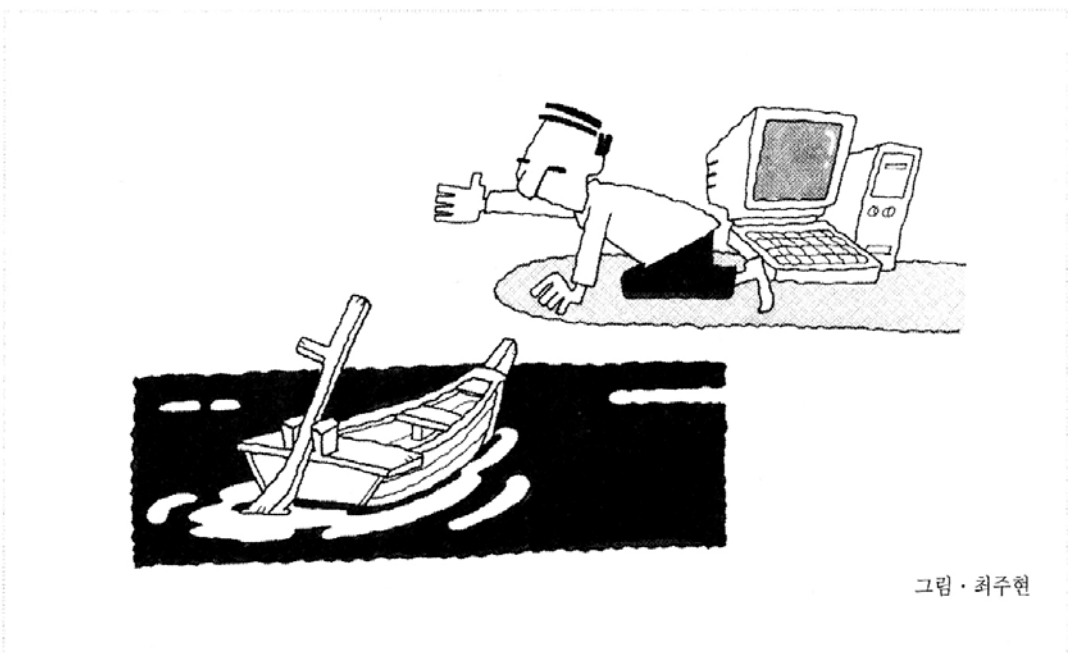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쳐야 해요” 지극하고 간절히 관하면 뿌리에 영양 주는 것

니까? 이 모두가 사람 사는 게 뭘했다 하면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말했다 하면 그것도 이미 바람같이 날라가고, 움직 거렸다 하면 바람같이 지나가고, 봤다 하면 바람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생 전도 과거이며 어제도 과거이며, 바로 앞 1초 전도 과거로 돼 버렸습니다. 하나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道)가 불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걸어들 때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놓으면 또 한 발짝 없어 집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내가 고(苦)가 있다, 팔자 운명이 있다, 나는 깨우치지 못한다는 등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고정되게, 발목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苦)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여러분이 고(苦) 없고, 그 고라는 이름마저 없는 뜻을 알겠습니까? 내 몸 하나 내버리면, 즉 내 몸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 저 강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 또 지옥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 불바위가 없는 줄 알아야 거둬들지 않고 홀랑 다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깨우치지 못했어도 모두가 나의 몸통이 속에 있는 거와 나와 틀어막아 놓은 때에 조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점점 지혜가 늘어서 돌이 아님을 알게되면 내가 없는데 어찌 강이 있으며, 강이 없는데 건널 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없는데 불이 어디 있어 타 죽으며, 또 내가 없는데 어떻게 강에 빠져 죽을 수 있었습니까? 이리니 이 모두를 다 아시게 되면 그래도 그 반야를 잡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는 보살들이 응신으로서 응해주십시오. 이 보현보살이란 행은 항상 용무로써, 평등공법으로써, 항상 상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했다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은 문수보살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보살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안하고 있다기도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했으니가 몸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켰으니가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될 자격이 99% 있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처님을 모

시고 수인행을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귀가 트이고 눈이 뜨이고, 한 발을 떼어놓지 않고 움직여가는 사이없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대로 수인행인 것입니다. 그대로 다 한마음으로 인해서 한바다 가운데서 해인을, 해인의 인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셔서 행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사불(邪佛)을 만들지 않고 진짜 여래 부처 법신을 만들 수 있다 이 소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물때다 놓고 빌고 향 피워놓고 초 켜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에 응사돼서 그 부처님을 사불이 됩니다. 내가 없다면 부처도 없는 것이기에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자불을 믿고 관해서 그 형상에다 절을 하고 매달린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깰터어서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자손대까지 물려가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의존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공덕이란 건 맛볼래야 맛볼 수도 없고 더구나 깨우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구니 소공을 만들고 부처님을 사불을 만들어 놓으면 세세생생 좋은 일이 못되죠.

우리 정수에는 항상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정수에는 정수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 그게 갖대 아닌 갖대로서의 상투를 바로 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못났든 잘났든 다 자기 컴퓨터가 있어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되었던 현실에 자주 나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입력이 되면 과거는 돌아서 현실로 오고, 미래가 과거로 왔다가 또 현실로 옵니다. 연방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삶을 살고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어떻게 내뱉는지, 이런 모든 마음의 차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입력된 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현실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쁘게 나오면 '너만이 좋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좋은 것이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역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47)

작발인 채로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아만을 들 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돌이킬수록 미묘하여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 오 슬기로운 마음인 것이니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라는 껍질이 하나 하나 벗겨져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의 벽이 사라지게 된다.

매사에 나를 앞세우는 그 아집을 발견하라. 발견해버려 버릴 수 있다. 내가 나라는 그 아집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요단 강도 건너지 못하고 '아제 아제 바라야제'의 그 강도 건너지 못한다. 불바퀴도 넘어지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말, 내 생각, 내 입장 속에서 살고 있다. 내 말이 남의 말보다 옳고 내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바르고 내 입장이 남의 입장보다 더方正(方正)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목소리는 커지고 내 생각은 고집스러워지며 내 입장은 성곽처럼 단단해진다. 그 결과는 언제나 논쟁 갈등 싸움으로 이어진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심하지 않는 한에는 그렇다.

고로 나를 앞세우는 일은 내 손으로 내

앞 길에 고·번뇌를 쌓아놓는데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따르면 내 생각대로 받아주고 내 입장에 동조해 달라'고 요구한들 상대가 순순히 들어줄 리 없기 때문이다. 아니, 들어주기는 커녕 거꾸로 똑같은 것을 요구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앞세우면 세울수록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관계가 될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번뇌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길은 가만 갈수록 좁아져 마침내 가시덤불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나를 버리는 길은 덤불에서 벗어나 신작도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앞세우는 내 모습을 돌아보려하지 않는다. 내가 옳고 바르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할 여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간혹 나를 되돌아 보는 경우라도 생각은 어느새 나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만다. 그래서 아만·아집은 발견하기도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마치 숨은 그림찾기 처럼 시선을 집중해서 살피지 않으면 단서조차 발견하기가



어렵다. 미묘한 것이다.

아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해도 그것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생각 돌리기 나름으로 아만을 벗겨낼 수 있다.

우선 내 눈높이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그것이다. 내가 높직이 올라 앉아서 상대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아래로 내려가 더불어 지내면서 차츰차츰 상대를 위로 이끌어 보라. 거기에 무슨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겠는가. 있다면 동반자로서의 삶이 있을 뿐이다.

혹은 내가 그가 되어주는 마음의 보시를 해보는 일이 그것이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일은 나의 아만에게 고개를 들고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내가 그가 되어주는데, 내가 일단 그에게 맞춰주는데 나라는 생각이 어느 틈에 있어 끼어들겠는가.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사물을 살피면 나의 아만은 양식이 떨어져서 서서히, 서서히 굵어 죽게 된다.

벽은 사라지고 장에는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이다.

두 발이 가즈런해야 바로 걷게 된다. 두 눈이 가즈런해야 똑바로 볼 수 있고 두 귀가 온전해야 제대로 듣게 된다. 나와 너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서로의 마음이 가즈런히 맞아야 한다. 그래야 둘이 아닌 줄 모르게 마음의 궁합이 딱 맞아 돌아갈 것이다.

짜짜이 찢기락으로는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없다. 짜짜이 신을 신고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짜짜 짜짜는 제구실을 다 할 수 없다. 한 쪽이 한 쪽에 맞춰 가즈런해줘야 제 기능, 제 구실을 하게 된다. 부부간, 부모자식간, 이웃간, 직장동료간... 어디에서나 그렇다.

제각기 서로 다름을 자랑삼고 견주고 경쟁해서는 결코 편안할 수 없고 잘 달릴 수도 없다. 아만은 '제 잘난 맛'인데 제 잘난 맛은 그 맛만이 언제나 소대 맛이다.

상대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느 경우든 나와 내가 2인 3각으로 뛰게 되어 있다. 제 잘난 맛을 고집하면 쓰러진다. 달릴 수 없다.

협 찬 : 소 충 호